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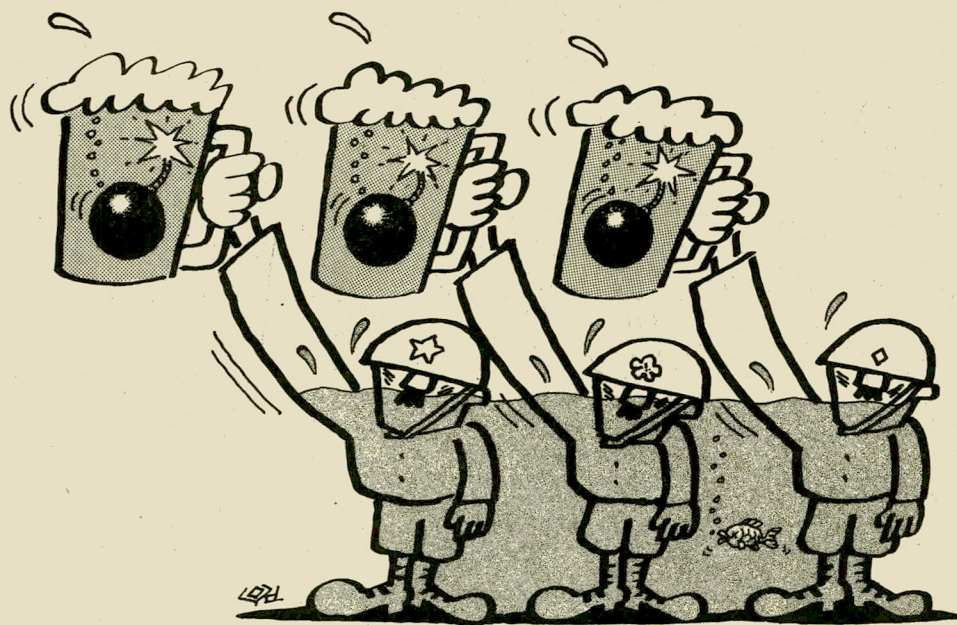
개인 주량 무시 획일주의·속전속결 '위하여'

‘함께 즐기기’ 아닌 ‘모두 병들기’

군사문화 사라져야 한다

2

폭탄주



명칭·주법도 갖가지

건설 기획실 제장 최홍석(31)씨는 지난주말에 있었던 부서 회식 때에도 역시 술에 곤죽이 됐다.

이날도 단합대회가 막판에 이르자 그 동안의 관례대로 좌중의 최고선임자인 실장이 '병권'을 잡고 맥주잔에 맥주를 가득 따른 뒤 술잔에다 양주잔을 '뇌관'으로 떨어뜨려 앉은 차례대로 잔을 돌렸다. 이른바 '원자탄' 돌림인데 모두들 알 팔팔해지자 이번에는 양주를 담은 맥주잔에 맥주가 담긴 양주컵을 넣은 '수소탄'이 한순배 돌았고, 나중에는 '끝장보기'로 양주만 가득부어 마시는 '중성자탄'이 날아왔다.

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그럼에도 상사·선후배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거푸 받아 마신 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인사불성이 되어 '필름이 끊기고' 말았다.

최씨가 이런 대취상태로 귀가 한 다음 날 오전 작취미성에서 깨어나 '악' 소리를 내는 경우는 한달에 2~3번 꼴인데 취중에 한 실언과 실수를 감지하고 느끼는 자괴감과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통상 3~4일이 걸린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술은 지루한 일상과 딱딱하게 굳어진 일서에 매몰되는 현대사회인에게 잠시라도 발산의 숨통을 열어줘 삶의 질을 윤곽하게 하는 윤희유 구실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잘마시면 약주요, 못먹으면 망주"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마시는 행태에 따라 좋은술과 나쁜술로 나뉘는데, 개인 체질이나 주량을 무시한 이런 '폭탄주' 관행은 최씨의 경우처럼 후유증을 낳는 건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술을 즐긴다기보다는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마시기를 강요하는 폭탄주는 음주시간과 취기를 초고속으로 단축시키는 속전속결과 폭탄을 맞으면 전멸하듯 투같이 취해야 하는 공생공멸, 획일화 정신이 담겨 있다.

른바 '농탈카'와 "마시면서 쩡그리거나 술잔에서 입을 떼거나 술잔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는 '쨍페오' 주법. 여기에 △별주 △공동운명주 △좌우로 함께 돌리는 연대주 △큰대접 등을 잔으로 사용한 호연지기주 등이 바로 그것이다.

5공 군부서 확산시켜

지난해 2월 당시 최세창 국방부 장관과 김진영 육참총장이 건전한 군내 회식·음주문화 풍토조성 발언을 계기로 육본 인사참모부는 군대식 폭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건배용어인 '위하여'도 없애도록 했다.

군이 이 캠페인을 벌이게 된 직접 동기는 고질적인 음주악습을 바로잡는 데 있었지만, 무장탈영과 같은 군인범죄의 70% 정도가 음주 때문에 저질러졌다는 자체분석도 크게 고려한 것이었다.

우리 고유의 음주풍속도를 크게 뒤를리게 한 폭탄주가 폭 넓은 사회적 음주 관행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5공 시절인 80년대초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당시 정치에 뛰어난 군부세력이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소하고 동지연식을 유발하기 위해 폭주의식을 널리 이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양과는 달리 술잔을 서로 권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독특한 우리의 술문화가 결합돼 정치·사회 각 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진단도 있다.

그를 무역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정연춘(43)씨는 앞서의 최씨와는 달리 이런 술자리가 동료직원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신뢰와 결속을 다지고 영업 등 사회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료들 사이에 상당한 '모주꾼'으로 통하는 정씨는 "이런 진한 술자리가 대인관계를 느긋하게 해 대화를 허물없이 터주고 동료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폭탄주 문화는 어느덧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대화가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있는 0대 공대 신입생 환영회 때 화과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독초로 만든 '3배주'도 요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변형된 신종 폭탄주의 하나이다.

신입생들은 이날 소주가 가득 담긴 맥주잔을 하나씩 비울 때마다 자신의 이성관·사회관·세계관을 밝히는 통과례를 거쳐야 했는데, 이 의식을 무사히 치른 신입생들은 '멋진 후배'로 선배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기업·대학까지 물들여

또 사대 농대는 맥주잔에 막걸리를 따른 뒤 소주잔을 집어넣는 '섬싱스페셜'을, 7대 풍물패는 징에 소주와 막걸리를 가득 부은 '박카스의 징소리'를 무차별로 돌렸다.

이런 음주행태는 여대생들에게까지 번져 0·8여대 등 일부 여학교 동아리에서 팽과리에 막걸리를 담아 단숨에 들이키는 '쇠주발 음주'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체의 영업부 사원들은 팀별 단합대회 때마다 큰사발이나 대접에 각종 술을 부어 참석자 전원이 둘러마시는 '운명공동체주'로 팀스프리트

를 다진다.

또 결혼식 피로연을 치르는 신혼부부에게 '두번 다시 받고 싶지 않은 축복'을 우인 대표들이 주는 악명 높은 '마음의 잔'도 있다. 이 잔은 신혼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시라며 대접에 각종 술과 물, 심지어 반찬까지 떨어넣어 마시게 하는 주법이다.

'국방위 회식'으로 '명성'

폭탄주가 정치권의 화제가 된 것은 86년 3월에 있었던 이른바 '국방위 회식사건'을 통해서이다. 당시 군 고위 장성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가 오가다 취중에 싸움이 붙어 장군들이 주먹을 휘둘러 여의위원들을 폭행한 사건이다.

또 89년 9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때 '공안정국'을 둘러싸고 여의위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끝낸 뒤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 도중 폭탄주를 마시는 바람에 일부 술취한 의원들이 감사가 속개된 뒤에도 주장을 부리는 추태를 벌여 '감사장에 술상 차렸다'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행정부쪽에서 폭탄주 관습이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져오고 있는 곳은 검찰로, 그 인맥도 화려하다.

검찰총장을 거쳐 5공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성기씨는 검찰 안에서 폭탄주의 '본산'으로 자부할 정도였고, 감사 출신인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과 이한동 민자당 의원, 박종철 검찰총장, 서울지검 간부 사씨 등도 자타가 공인하는 호주가로 잘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그 누구보다 폭탄주에 길들여지는 이유는 범죄자를 다루는

검사로서 '간을 키우고 배짱을 늘리기' 위한 비공식 필수 연수과정으로 이 주도를 배우게 하는 조직의 특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밖에도 폭탄주 실력으로는 이인섭 전 경찰청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기본으로 5잔을 마시고 새로 시작할 정도의 두주불사형이며 안필준 전 보사부장관, 염보현 전 서울시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주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량을 남자다움의 잣대로 삼는 허식적 음주관행에서 비롯되는 폭탄주는 술의 소비촉진 등으로 '국력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주객들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병호 박사는 "폭탄주 등의 폭음행위는 자신의 주량과 호방성을 드러내려는 과시충동과 한꺼번에 취해 의식적으로 자기를 없애려는 소멸지향성을 표출하는 양면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알콜 농도가 높은 합성주 일수록 마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과 주량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간장과 위에 큰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인이 '아시아의 술고래'이며 간암·결핵발병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와는 한마디로 우리의 수칙과 불명예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며, 결국엔 술이 사람을 마시게 하는 폭탄주 등의 무제한 술자리 악습은 군사문화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문민사회에 걸맞는 건전한 술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영일 기자